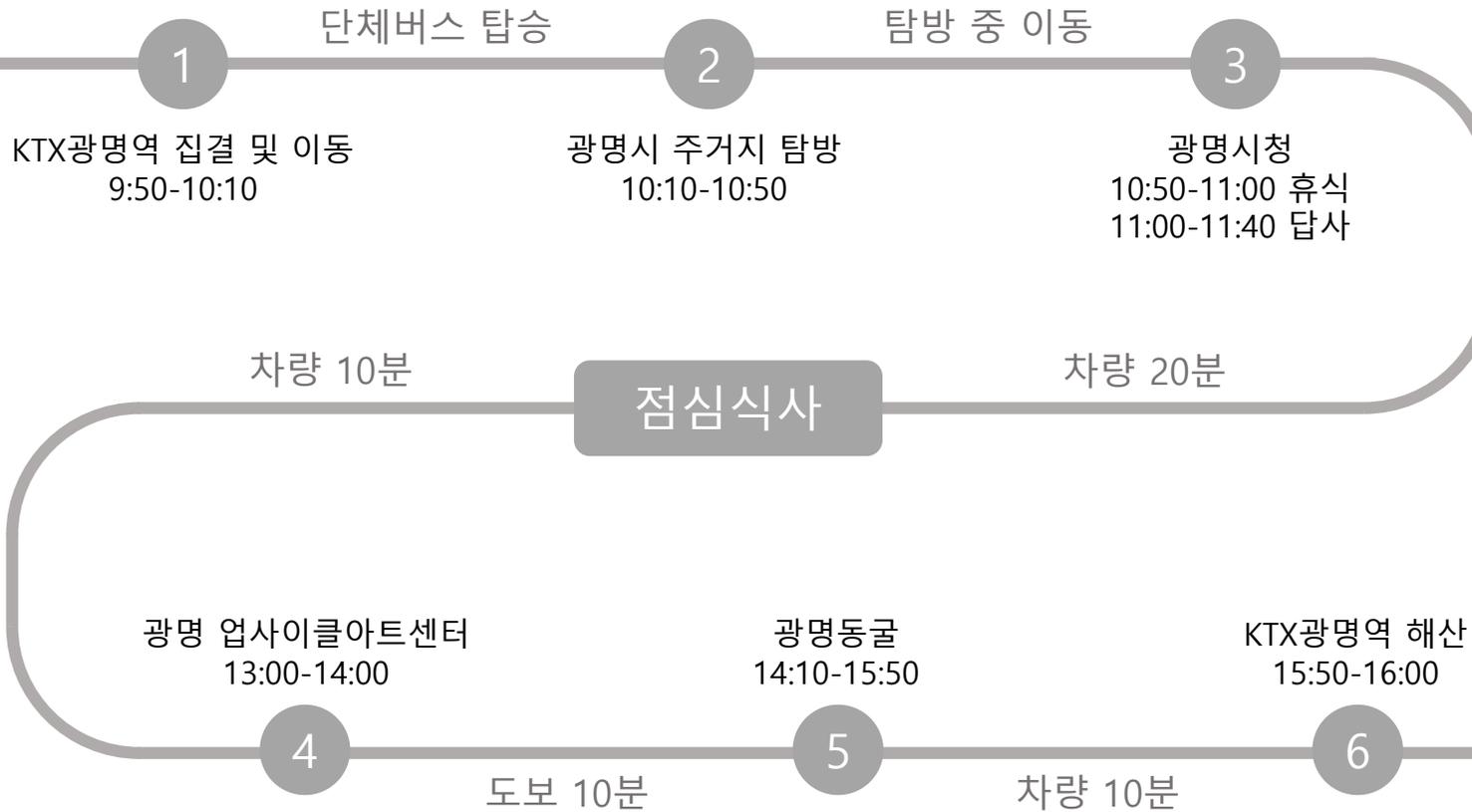


# 광명시 주거지 및 광명동굴 일일답사

- 일시: 2022년 8월 25일(목) 10시~16시
- 집결: KTX 광명역 9:50-10:10
- 인원: 약 30명
- 비용: 1인 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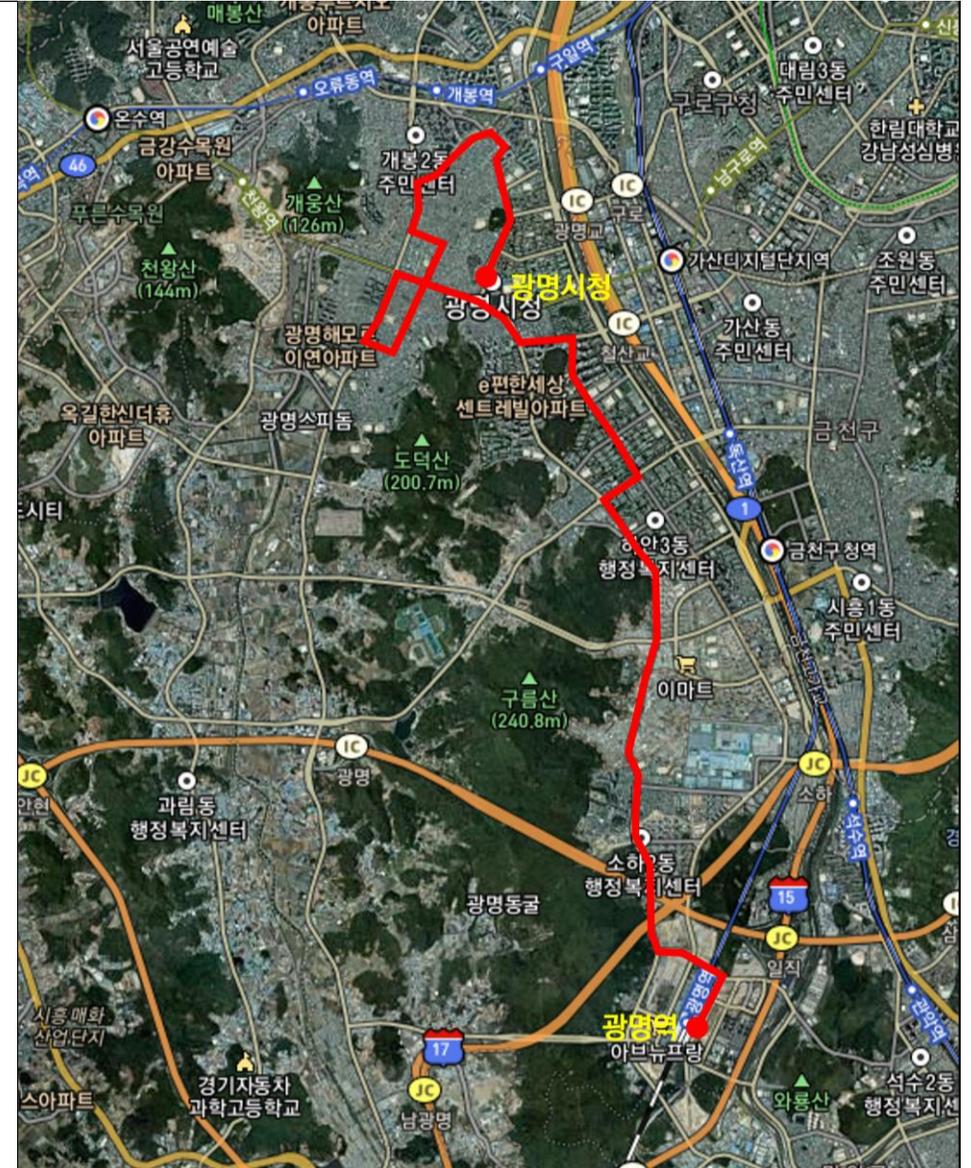


# 장소 및 일정



# 광명시 주거지 탐방

- 버스로 단체 탐방
- 10:10-10:50
- 설명: 황종대 센터장



# 광명시청

- KTX광명역 → 광명시청 (주거지 탐방 중 이동)
- 10:50-11:00 휴식 및 정비
- 11:00-11:40 광명시청 답사
- 설명: 양철원 학예사
- 주소: 경기 광명시 시청로 20



## 창조적이고 앞선 개념을 가진 시청사

김수근 건축가는 여러 건축물에 친숙한 재료인 붉은 벽돌을 도입하였고, 붉은 벽돌이 건축의 일반적인 재료가 되기까지는 그의 영향이 컸다. 그가 건축계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이후 세상을 뜨기 전까지 건축된 220여개의 작품 중에 광명시청사가 존재하며, 우리나라 관공서 건물 중 유일하게 붉은 벽돌로 건축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도시건설과 더불어 시청사의 신축은 필요불가분한 사회시설이 되었다. 80년대 이전의 시청사는 행정관리상의 편리·기능성만을 추구하여 관청건물의 권위·폐쇄성을 내세운 상징물로써의 건축이었다. 그에 반해 80년대 이후의 시청사는 시민의 긍지, 지역의 특수성, 지방자치제로 넘어가는 단계로서의 상징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과도기인 당시에는, 관공서의 신축을 제한하고 청사의 규모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는 관례가 존재했다. 그럼에도 광명시청사는 웅장한 규모의 붉은 벽돌 건축물로 지어졌고, 그 때문인지 외관은 관공서라기보다는 예술회관에 가까운 형태를 띤다.

준공 당시 본관 정면에는 넓은 광장이 있었다. 최근의 현대식으로 지어진 관공서의 경우에는 로비가 흔하지만, 경직된 분위기의 관공서가 보편적이던 당시에는 파격적인 시도였다. 1층에서 2층까지 이어진 로비를 배치하고, 1층 입구에는 곧바로 민원 봉사실을 배치하였다. 이는 시민과 밀착되는 행정을 상징하는 획기적인 설계라고 할 수 있다. 이 흐름을 따라 광명시는 자연스럽게 1996년 국내 최초로 종합민원국을 가동하고, 종합 민원실을 독립적 공간으로 마련하여 주민과 밀착된 행정 서비스를 보여주었다.

## 질서와 부드러움을 동시에 지니다

광명시청 건물은 광명시 개발의 중심지인 시청사를 핵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여, 장차 시의 발전에 구심적인 역할을 담당케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자체적인 건축 어휘를 사용하여 질서 있는 광명시의 미래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조형상 수평·수직의 요소를 강하게 나타내어 형태 전체에 질서를 부여하였다. 휴먼 스케일의 내부 공간 구성과 벽돌이 사용된 장식 띠가 둘러진 열주의 수직적인 표현, 그리고 우리 전래 탑 형태의 수평적인 표현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청이 가져야 할 부드러운 이미지도 부각하였다.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큰 스케일의 건물이 가질 수 있는 중압감을 배제하기 위하여 기둥이나 벽에 디테일한 요소를 적용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웅장한 외관과 달리 청사에서 생활하기에는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고 좁다는 평이 많았다. 당시 관공서 건물에 대한 층수, 규모 및 연면적 규제를 맞추기 위해 중앙에 넓고 높은 로비를 2층까지 배치하고, 3층도 야외 공간으로 조성되어 사무실이 로비를 중심으로 외곽을 둘러싸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본관의 측면에 증축을 하였고, 현재 모습은 준공 당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1980년 초라는 상황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공서를 신축하는 데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광명시청사 공사는 획기적인 디자인 설계와 더불어 시민과 밀착된 구조의 미래 지향적인 설계로 화제였다. 그렇기에 더 심혈을 기울여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그 결과 시청 본래의 기능을 충족하는 동시에 시민생활에 대한 정보제공의 기능도 갖추게 되었다.

▼ 광명시청 전경



▼ 광명시청 정문



▼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 준공 당시 중정 전경



▼ 준공 당시 중정 천창



▼ 시청 본관 전시회



▼ 민원실 내부



출처: 김수근문화재단, "광명 시청사", <http://kimswoogeun.org/archives/397>, 2014

광명데일리, "광명시청 민원실, 색깔별 민원안내 표시", [https://www.gm1.co.kr/2019/09/article\\_61.html](https://www.gm1.co.kr/2019/09/article_61.html), 2019

두피디아, "광명시청", [https://www.doopedia.co.kr/photobox/comm/community.do?method=view&GAL\\_IDX=210315001263321#header](https://www.doopedia.co.kr/photobox/comm/community.do?method=view&GAL_IDX=210315001263321#header), 2021

광명시평생학습원, "시청본관 전시회", <https://lll.gm.go.kr/circle/selectBbsNttView.do?key=500929&id=studygroup59&bbsNo=500029&nttNo=43507&searchCtgr=&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2013

▼ 광명시청 본관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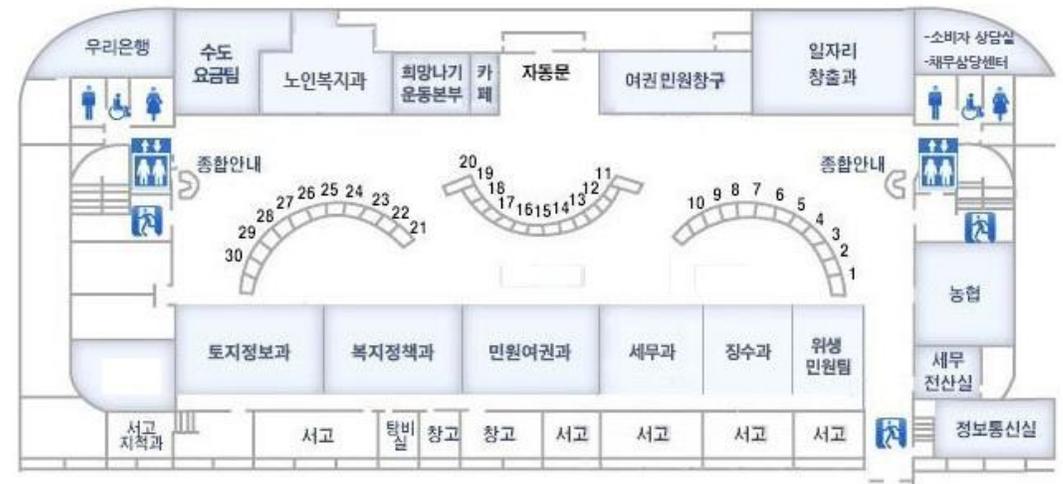
▼ 광명시청 본관 3층



▼ 광명시청 본관 2층



▼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 점심식사 (소통한우축산)

- 광명시청 11:40 → 식사장소 12:00 (차량 20분)
- 12:00-12:50
- 주소: 경기 광명시 가학로 144
- 한우 갈비탕, 육회비빔밥 등



#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

- 식사장소 12:50 → 업사이클링 센터 13:00 (차량 10분)
- 13:00-14:00
- 설명: 황종대 센터장
- 주소: 경기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



## 유휴지가 예술공간이 되기까지

업사이클이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recycle)'의 합성어로 '재활용(Re-Cycle)'에서 한 단계 진화한 단어이다. 버려지는 물건에 예술적 가치를 더해 새로운 작품 및 상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을 말한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이러한 '업사이클'이란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디자인 교육, 그리고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예술 공간이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 공모에 선정된 후,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홍보동을 새장하여 2015년 국내 최초 업사이클 예술공간으로 개관하였다. 지역의 버려진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본 센터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 업사이클 예술축제 개최 및 이케아와 업사이클 기부 사업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에서는 전문가들의 창작 및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업사이클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 또한 제공하고 있다. 그 예시 중 하나로 '에코건축학교'를 들 수 있다. 청소년 특화 업사이클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청소년들이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해 배워보는 건축 수업이다. 실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들의 도움을 받아 환경 친화적인 주변 재료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건축 디자인 모델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건축에 대한 창의성과 실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자유롭게 흐르는 예술을 위하여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의 디자인 설계 과정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건축 디자이너 '로랑 페레이라'가 참여하였다. 그는 외부와 내부의 소통, 무거움과 가벼움의 혼재, 공간과 공간간의 막힘없는 연결이라는 컨셉을 통해 독특하면서도 편안하고 세련된 공간을 조성하였다.

더불어, 창고와도 같은 반투명 플라스틱의 교육 공간과 비행기 격납고 같은 거칠고 무딘 공간을 창조하여, 과거 기념적 건축 디자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기관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던 공공 건축의 타성을 과감히 벗어던졌다. 그는 이 업사이클아트센터가 한 곳에 멈추는 것이 아닌 자유롭게 흐르는 예술을 위한 '플랫폼'으로 작용하여, 이를 통해 노마드적인 현 시대의 인식을 공유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센터는 서로 다른 용도의 공간이자 상호작용의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아트센터에 담기는 예술과 방문자 모두가 상품화된 실체로 한정되거나 기능적으로 고정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센터로 통하는 여러 개의 입구는 각각의 공간이 '계층화' 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공간들이 서로 열려 있어 다양한 동선을 만들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센터 내부에서는 모든 공간에서 다른 공간을 내려다보거나 또는 올려다볼 수 있다. 이는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센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공간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투박하고, 동시에 유동적인

업사이클아트센터와 이웃하고 있는 에코에듀센터는 건축허가 부지 안에 신축된 교육시설이다. 외부 다리 및 승강기를 설치하여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곳의 건축요소는 거의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한 철골 구조와 거친 플라스틱 외피이다. 외피 소재로 플라스틱을 일관되게 사용하여 유동적이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각적 정체성을 갖도록 하였다. 내부에서 벽을 보면 바깥 풍경이 색색으로 번져 보이며, 밖에서 바라볼 때 낮에는 투명한 거울처럼 보이거나, 밤에는 분홍색과 노란색을 띤 라이트박스처럼 그 모습이 달리 보인다.



▲ 에코에듀센터의 낮



▲ 에코에듀센터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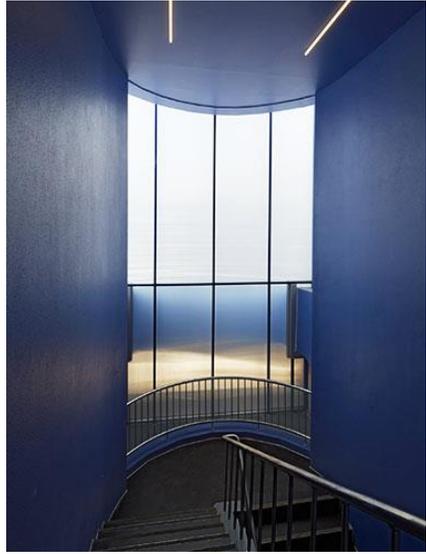


▲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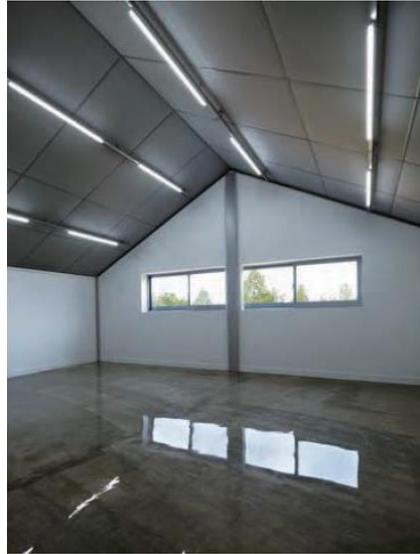
▼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전시홀



▼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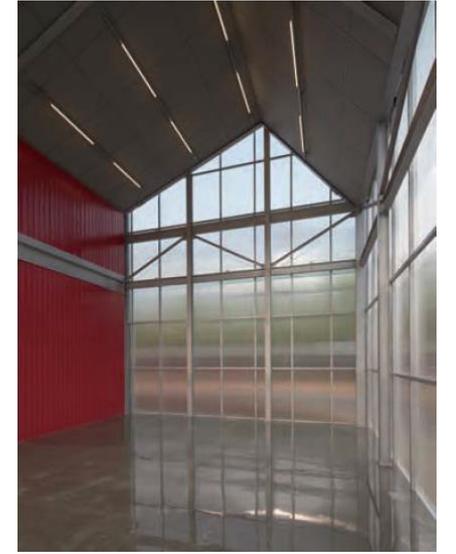
▼ 에코에듀센터 교육실



▼ 에코에듀센터 계단실



▼ 바깥풍경이 비쳐보이는 내부



▼ 개방성,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강조된 공간



▼ 《엔데믹, 업사이클》 1



▼ 《엔데믹, 업사이클》 2



▼ 《엔데믹, 업사이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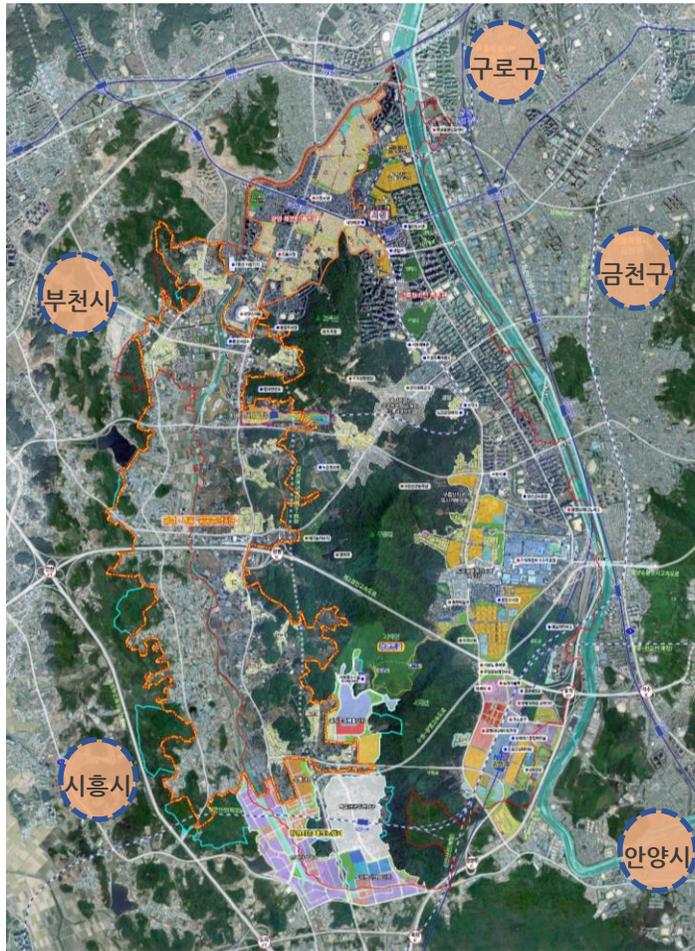


# 광명시 도시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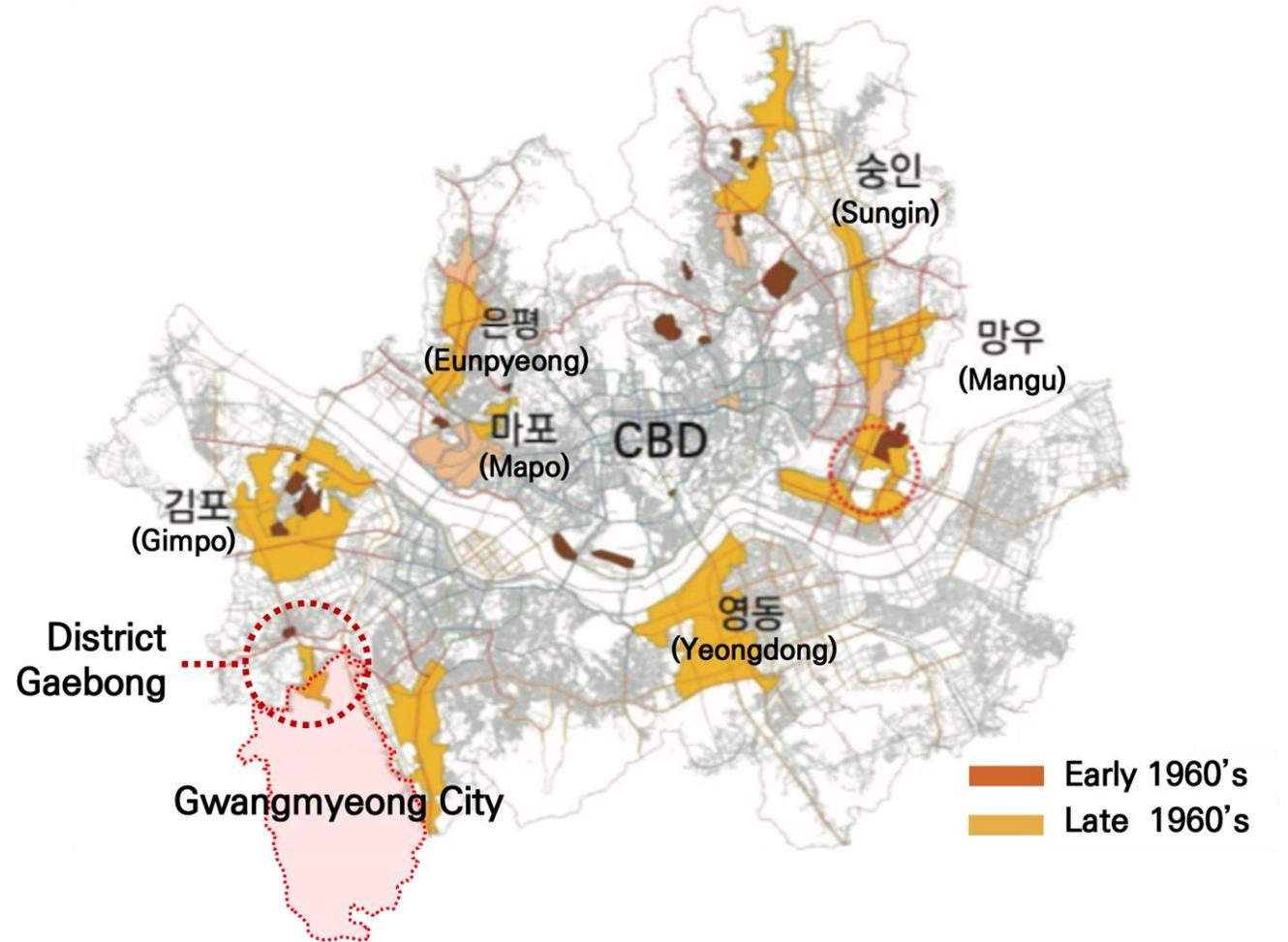
- 설명: 황종대 센터장
- 장소: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



## 광명시 현황 및 도시화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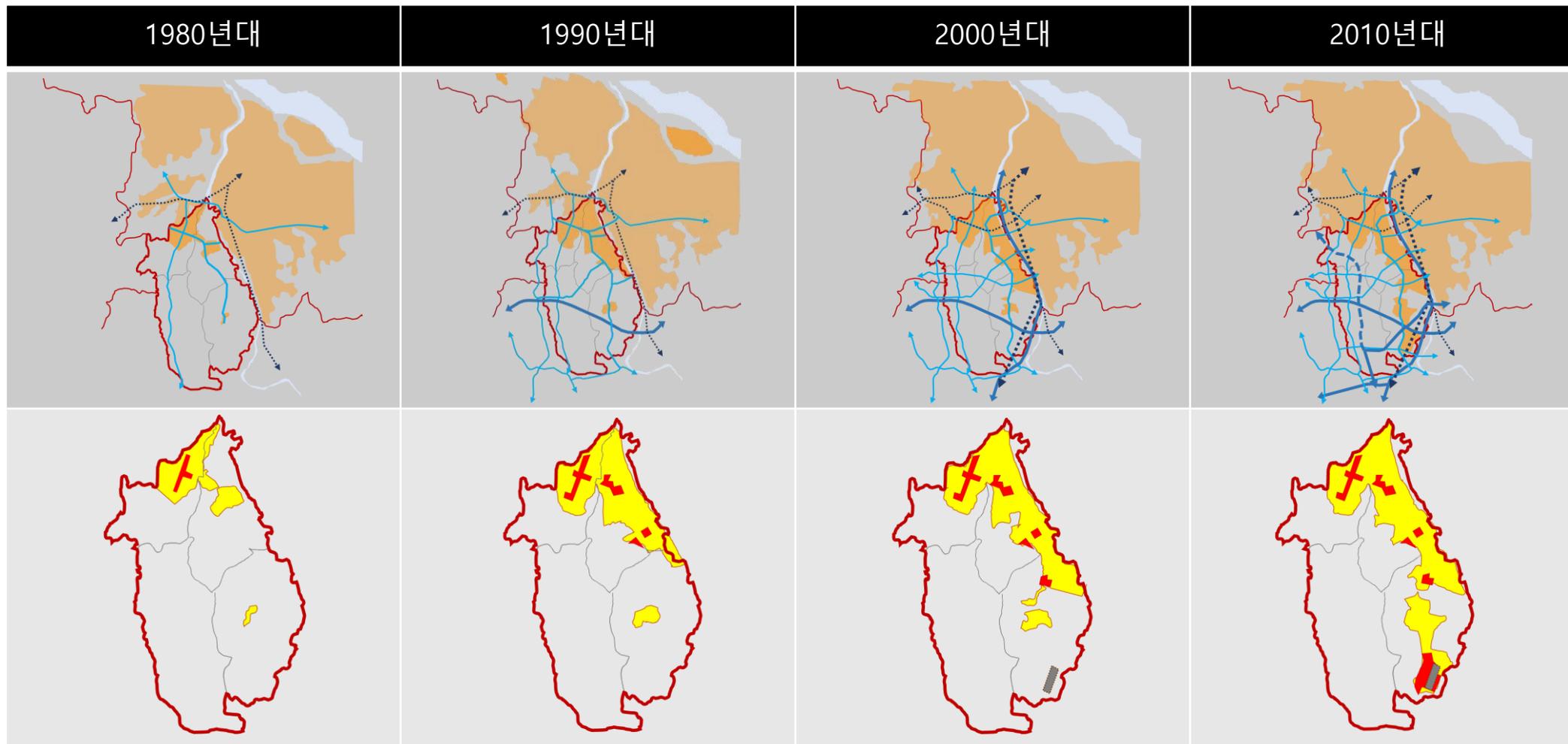


▲ 광명시 및 주변 자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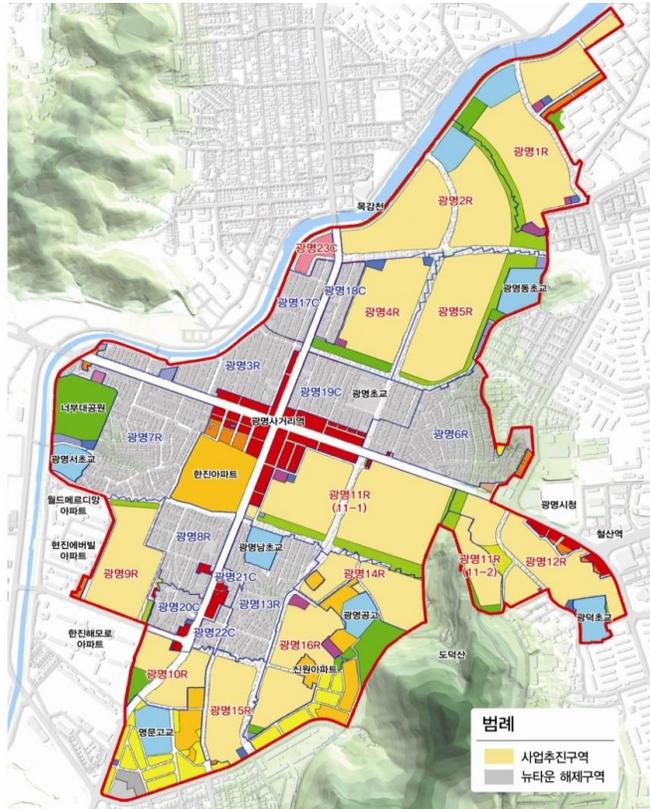


▲ 광명시 도시화의 시작 - 1960s

## 광명시 도시화와 개발과정



## 광명시의 도시재생



▲ 광명 뉴타운의 추진과 해체



▲ 도시재생 시정 기자회견

## 광명시의 도시재생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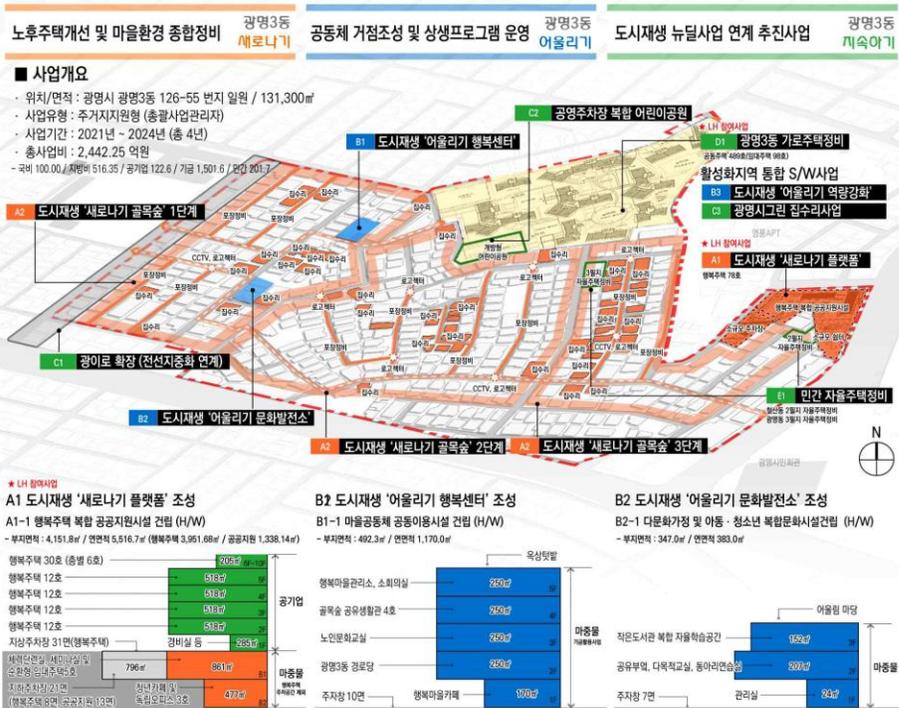
▲광명3동 골목숲 소규모재생사업



# 광명시의 도시재생

광명3동에 들어온 3동(새바람), 3기(새기운)  
; 새로나기, 어울리기, 지속하기

<b>A1 도시재생 '새로나기 플랫폼' 조성사업</b> (74.04 억원) A1-1. 행복주택 복합 공공지원시설 건립 (H/W) : 청년창업주택(100㎡) 및 공공지원시설 통합형의 순환경제 임대주택 조성 A1-2. 소규모 주차장 및 휴게쉼터 조성 (H/W) A1-3. 소규모 주택정비 아카데미 운영 (S/W)
<b>A2 도시재생 '새로나기 골목길' 활성화사업</b> (23.17 억원) A2-1. 골목길 골목길 환경정비 (H/W) : 정비구역 내 CCTV, 로고패널, 벽화, 연필화분, 공공 벤치 등 골목길 미관정비 A2-2. 골목길 노후주택 보수 지원 (H/W/S/W) : 골목길 집수리사업 운영 및 외부정비지원, 노후주택 성능개선 보수 지원
<b>B1 도시재생 '아울리기 행복센터' 조성사업</b> (44.63 억원) B1-1. 마을공동체 공동이용시설 건립 (H/W) : 마을카페,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마을관리소 및 환경지원센터, 골목길 공유생활관 B1-2. 광명3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S/W) :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운영 및 도시재생 커리어스 운영 지원 B1-3. 행복마을 지원이 프로그램 운영 (S/W) : 중·장년층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연말/초, 여성/청년층,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등)
<b>B2 도시재생 '아울리기 문화발전소' 조성사업</b> (28.81 억원) B2-1. 다문화가정 및 아동·청소년 복합문화시설 건립 (H/W) : 공유부엌, 다목적 교실, 음악의 연습실, 직인도서관 복합 자율학습실, 어울림 마당 B2-2. 어울림 한마당 프로그램 운영 (S/W) : 주민 한마당 축제 개최 및 어울림 문화축제(다문화 요리교실, 아동 언어교실 등) 운영
<b>B3 도시재생 '아울리기 역량강화' 운영사업</b> (7.20 억원) B3-1. 도시재생대학 운영 (S/W) : 주민재능사업 실행과정 B3-2. 주민재능사업 운영 (S/W) : 소규모 환경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B3-3.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 (S/W) : 성과자료 모니터링 및 과정별 기록화
<b>기타 연계사업 (자재비+공기비+인건)</b> (2,264.40 억원) C1. 지자체별 광이로 확장사업 (400.0억원) C2. 지자체 광명주차장 복합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6.0억원) C3. 지자체 광명시 그린 집수리사업 (1.09억원) A1연계. 공개입 행복주택 78호 건립 (110.1억원) C1연계. 공개입 광이로 안전 지중화사업 (25.0억원) D1. 공개입 설마 광명3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1,657.3억원) E1. 민간 자율주택정비사업 (35.0억원)



▲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광명에 그린 Green 정감 넘치는 새터마을

시업명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유형: 정비형)  
 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298-1번지 일원 (대영4동, 광명5동, 광명7동)  
 사업기간 : 2022년~2025년(4년)  
 면적 : 78,400㎡  
 인구 : 2,399명(1,038가구)

<b>A   정비기반사업</b> A-1   헬스도로 확장사업 2,280㎡ 2-1 오지문953번지 - 6m(도로 폭) - 연장 70m 2-2 광명로848번지 - 6m(도로 폭) - 연장 45m 2-3 새터로67번지 - 6m(도로 폭) - 연장 145m A-2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3,180㎡ 3-1 오지문953번지 - 6m(도로 폭), 연장 67m 3-2 오지문979번지 - 6m(도로 폭), 연장 103m A-3   상가거리 보행환경 개선 18,070㎡ A-4   어린이 공원 및 광명주차장 86,780㎡ - 위차: 광명동 297 일원 - 규모: 2,000㎡(주차수 210대)
<b>B   공동이용시설</b> B-1   주민공동이용시설 87,720㎡ - 위차: 광명동 301-34 - 규모: 365㎡(대지면적), 219㎡(건축면적), 1,070㎡(연면적)
<b>연계사업</b> 19,470㎡ 차1   행복마을관리사(임기제) 7,380㎡ 차2   주택학교(소규모주택정비사업) 0.090㎡ 차3   간담회사업 12.000㎡ 차4   가로전선 및 통신선로 지중화 31.000㎡ 차5   현상개선사업 13.600㎡ 차6   새터로 확장공사 77.500㎡



▲ 새터마을



## 광명시의 도시재생



7구역 공공재개발지구

8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

▲ 공공개발사업 추진



▲ 광명시 집수리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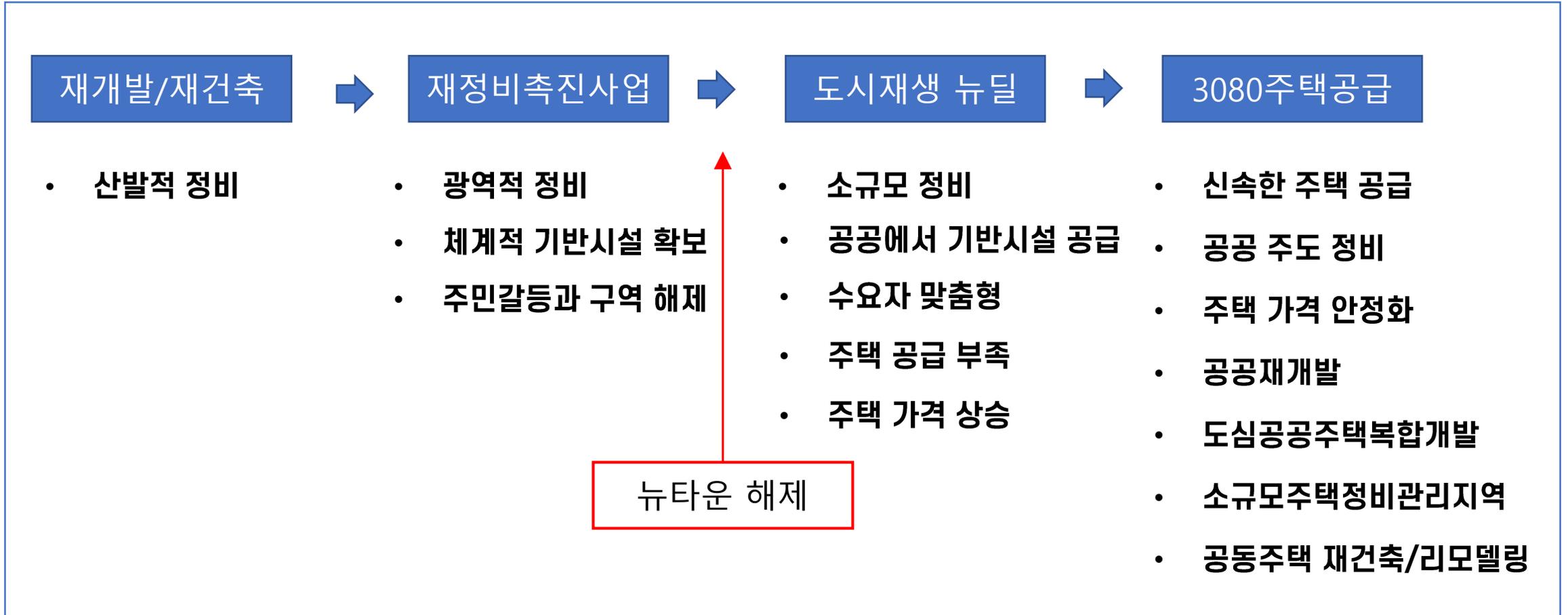


▲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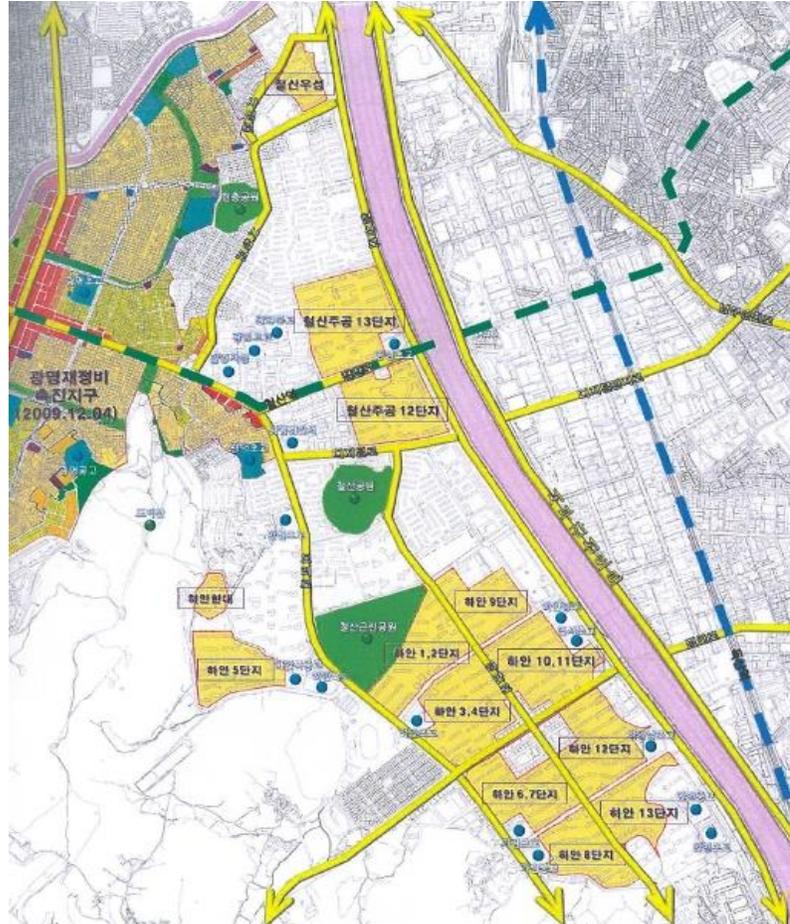


▲ 광명시 임대주택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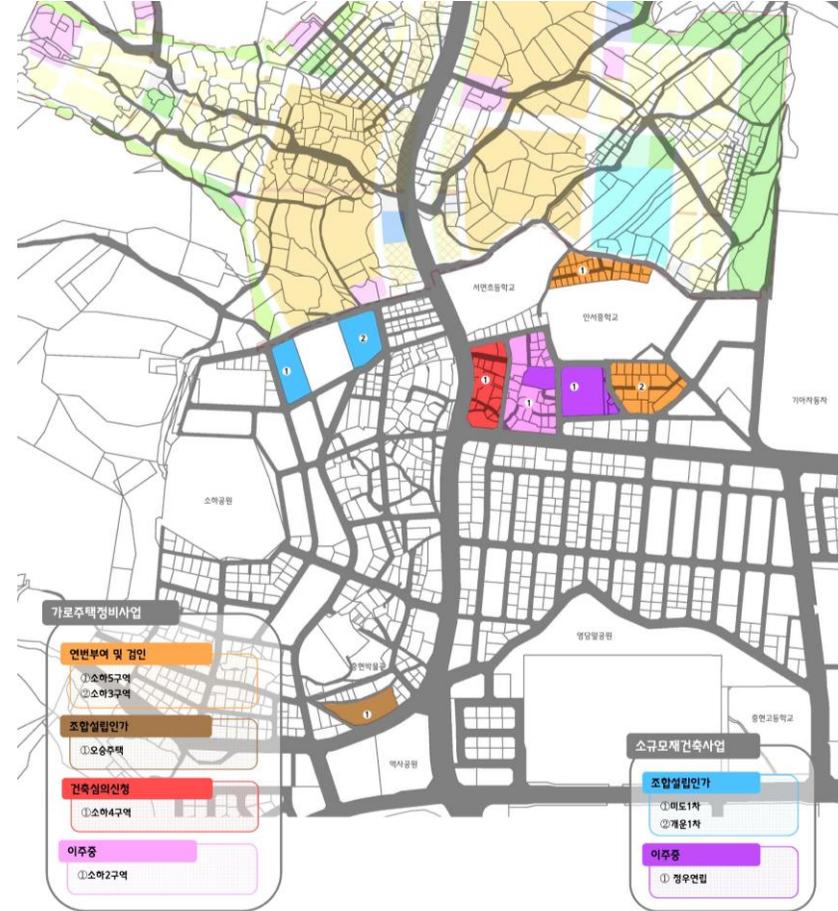
광명시 도시재생의 흐름



## 지역별 현황



▲하안동 노후 아파트 단지 현황



▲소하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황

# 광명동굴

-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 14:00 → 광명동굴 14:10 (도보 10분)
- 14:10-15:50
- 주소: 경기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
- 설명: 광명동굴 해설사



## 기적을 캐낸 광명동굴

광명동굴의 옛 이름은 시흥광산으로, 광명시 남쪽 외곽에 있는 가학산 중턱에서 시작한다. 산을 동서로 관통하는 갱도가 척추 역할을 하며, 그 곳으로부터 6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파내려간 흔적이 지하 8층, 총 연장 7.8km에 달한다. 한창때는 500~600명의 노동자가 하루 250톤의 암석을 캐냈으며, 주요 산물은 금, 은, 동, 아연 등이었다.

시흥광산은 1972년 홍수 때문에 폐광되었다. 이후 한 사업가에게 매입되어 40여 년간 새우젓 창고 용도로 사용되는 도중에 8층의 하단부 7개층은 지하수에 서서히 잠기게 되었다. 그렇게 잠들어있던 시흥광산은 1990년대 후반 전국적으로 폐광 지역 개발이 이슈가 되면서 관심을 받게 되고, 2010년부터 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

시흥광산은 보통 광산과는 달랐다. 무른 석탄이 아닌 단단한 금속을 캐던 곳이었기에 광산 전체에 침묵 하나 없이도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 석탄재 같은 것도 없어 공간이 쾌적했으며, 조금만 길을 넓히면 메인 갱도에는 작은 트럭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 약 8개월간의 준비작업을 거친 후 2011년 8월, 시흥광산이 '광명동굴'로 재탄생하여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초기에는 별다른 콘텐츠 없이 약 400m의 갱도를 견학하였으나, 점차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하고 각종 전시회 및 공연들을 진행하는 등 광명동굴은 끊임없는 개발을 이어왔다. 그 결과 광명동굴은 2017년 '대한민국 100대 관광지'에 선정되었고, 현재까지도 관광객 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 먼저 쌓인 낙서가 살아있는 역사가 되다

광명동굴의 최초의 기록은 1903년 5월 2일 가학리에 '시흥광산'이 설립되었다는 기록이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광업권침탈차원에서 당시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 고종황제를 압박하며 '광상조사기관'을 설치하고, 금·은 광산을 발견하여 이를 독점하려고 온갖 힘을 쏟았다. 이 과정에서 시흥광산이 1912년 고바야시 토우에몬이라는 일본인의 이름으로 광산 설립이 되었고, '광상조사기관'을 앞세운 일제의 광업권 침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광산에는 대부분이 농민 출신으로, 징용과 생계를 위해 온 광부들이 많았다. 전성기 때는 500여 명의 광부가 근무하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채굴된 광물들은 일본으로 보내져 태평양 전쟁의 무기가 되었고, 해방 전까지 굉장한 양의 광물이 수탈되었다.

광명동굴 내 지하갱도는 갱도구조를 통해 광산개발의 방식과 통풍, 환기 등 작업환경을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자료이다. 또한, 당시 광산에서 근무했던 광부들이 암벽에 그린 낙서도 존재한다. 이렇듯 광명동굴은 산업역사현장으로서의 가치에 역사적 가치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광명동굴은 10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부레벨로부터 지하7레벨까지 7.8km의 갱도와, 외부에서 광석을 선별하던 선광장 터가 현재까지 그대로 남겨져 있다. 선광장에는 한 덩이씩 쌓아 올린 석조 플랜트와 기계를 받치던 콘크리트 기초들이 남겨져 있어 당시 산업건축양식을 분석하는 동시에 산업시설 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학술자료가 되어준다. 광명동굴은 이렇게 근대산업유산의 보존과 문화예술을 통한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

▼ 황금길



▼ 광명동굴 근대역사관



▼ 와인동굴



▼ 선광장(현재 폐쇄)



▼ 강제노동을 시달리는 광부 모형



▼ 광부들의 낙서



출처: 광명동굴 공식홈페이지, "광명동굴 스토리", [https://www.gm.go.kr/cv/gc/11/CVGC\\_11100.jsp](https://www.gm.go.kr/cv/gc/11/CVGC_11100.jsp)

정현수 "광명동굴 선광장", [https://www.doopedia.co.kr/photobox/comm/community.do?method=print&GAL\\_IDX=171031001081063](https://www.doopedia.co.kr/photobox/comm/community.do?method=print&GAL_IDX=171031001081063), 2017

김애진, "폐광 동굴에 문화 예술을 채우다",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f73ff6df-ff46-4f9e-9cb0-597f6644506d](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f73ff6df-ff46-4f9e-9cb0-597f6644506d), 2019

위택환, 김영신, "한국 와인의 집결지 광명 와인동굴",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7491&page=1&pageSize=10&photoPageSize=6&totalCount=0&searchType=null&searchText=&cateCode=>, 2017



